

내가 작년 1월에 도쿄에 갔을 때 겪은 일이다. 우리 내외는 아침 일찍 신주쿠역에서 로망스 카를 이용하여 하코네 일대를 구경하고 저녁에 돌아왔다. 우리는 신주쿠역에서 내리기는 하였으나 아침에 탄 승강장의 위치를 잘 몰라 어리둥절하다가 맞은 편 출구로 나가면서 역원에게 신주쿠 호텔로 간다고 하니깐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하였다. 그때 마침 지상 승강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오던 것이 기억나서 찾고 있는데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뒤를 돌아 보니 젊은 역원이 엘리베이터 타는 곳까지 우리를 친절히 안내하여 주었다. 하도 고마워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가 나이가 많은 외국 관광객인 줄 알고 안내해 준 것이 틀림없다. 일본의 친절문화가 국제적으로 이름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작은 선행이 쌓이면 그것은 바로 국가의 인지도(認知度)를 높이는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다.

덧말: 이 글은 지난 2월 서울지하철공사의 사보 3월호에 실릴 예정으로 지하철 공사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아 쓴 것이었으나 사시(社是)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게재가 보류된 원고이다. 아무쪼록 이 글이 널리 읽히어 지하철의 언어 표현이 바로잡혀지기를 바란다 - 글쓴이

## 묻지 마 관광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구 인 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 하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견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하기가 하도 해괴한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세상이고 보면, 이 정도야 문제가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견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도 남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묻지 마 관광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모처럼의 나들이였다.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 날마다 이리저리 뛰어 다니다 보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리둥절할 때가 많다. 일 년 내내 연두색의 신록이 노랑 낙엽으로 변해 가는 가로수 한 번도 보지 못할 때가 많고, 언제 봄이 가고 가을이 가는지 알 수 없게 나날이 지나간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그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살아가는 일인지도 모른다.

“정말 혼자 가기에요.”

“이번은 머리 좀 식히고 와야겠어.”

사실은 같이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면서 아내는 은근히 바가지를 긁는다. 언젠가 한 번 같이

나갔다가 혼이 난 기억이 아직도 새로운지 나설 생각은 조금도 없이 그저 한 마디 해보는 말이다.

“사람은 혼자 있어 봐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고 또 자기도 굶어 볼 수 있다는 거야.”

굳이 변명을 하는 자기가 우스운지 아내는 어서 가라고 손을 내흔들면서, 술은 많이 마시지나 말고 잠이나 잘 자라는 부탁을 잊지 않았다.

울진 백암온천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가까웠다. 충주를 지나 충주호를 멀리 바라보는 월악산 국립공원을 옆에 끼고 수안보온천을 지나 문경세계 도립공원을 넘어 점촌으로 빠지는 길은 가벼운 발길과도 같다. 호반과 온천의 낭만에 문경세계의 중령에 서린 임진왜란의 한과 1천 미터가 넘는 월악산, 주흘산, 신선봉, 백화산 등 준령의 계곡의 절경은 길손을 사로잡고도 남는다. 예천을 거쳐 옛도시 안동을 지나 영양을 넘어 배암온천에 이르는 작은 들을 애워싼 산과 계곡을 관광 버스는 신이 난 어린애와 같이 달려갔다.

백암온천은 산곡 깊은 계곡에 있는 천혜의 온천이다. 구룡폭포, 중계폭포, 하계폭포가 그 절경을 자랑하는 통고산과 일월산의 태백의 줄기가 내려와 관음사와 유금사가 진좌하고 영양해수욕장의 명소를 굽어 보는 1,003미터의 백암산의 계곡에서 솟는 온천인 백암온천은 물이 좋기로 유명하다. 너무 멀고 깊어 작심하여 오기가 힘들지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것을 잊고 온천과 산수에 젖어 사랑과 낭만에 취하는 곳이다.

먼 길을 달려온지라 저녁은 꿀과 같이 맛이 있었다. 뜨겁게 느껴지는 온천물에 온 몸을 담그니 이건 꿀물이나 감로수에 몸을 담근듯이 달고 촉촉한 기분에 빠져들어 간다. 백까지 세면서 물 속에서 잠시 명상의 구름을 타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 다니다가 밖에 나오니 이건 신선이 된 기분이다. 깊이 호흡을 되풀이하면서 이번 나들이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데 놀란다. 그리고 식당에 들어서 먹는 저녁은 고대광실이 부럽지 않다. 산채 백반에 소주를 곁들이니 이것은 신선이 된 우화등선(羽化登仙)이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살아가는 재미가 소복소복 온 몸을 감싸는 황홀한 경지다.

문제는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새벽녘 얼떨결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여니 이건 감탄 그것이다. 붉게 떠오르는 듯한 계곡의 단풍이 한눈에 압도해 왔다. 시원한 공기를 마실 겨를도 없이 단풍에 빨려 들어가듯이 밖으로 나갔다. 계곡의 산이 온통 단풍으로 뒤덮여 있다. 노랑과 붉은 색이 알맞게 섞이고 소나무의 녹색이 사이에 점철되어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그 색깔들이 바람에 나부끼어 황적색 의상의 무희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였다. 한참 동안 멍하니 그 단풍의 멋진 춤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계곡을 따라 걸어갔다.

단풍의 춤과 계곡의 맑은 물소리! 이것은 한편의 회화요 코러스였다. 계곡의 기암과 절벽을 벗어나 단풍 낙엽의 일엽편주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흘러내려 오는 맑은 물소리가 세상의 모든 티

끝을 씻어 주는 것 같다. 단풍 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더욱 단풍의 계곡을 생동하게 했다.

-보이소, 아저씨!

나는 깜작 놀라 소리 쪽을 바라보았다.

-여기 아닝기요, 아저씨!

아저씨라는 말이 좋았다. 할아버지 하고 불렀으면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늙수래한 남자가 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 말이요, 왜 사람을 방해해요.

-아저씨! 단풍보다 더 좋은 게 있지우.

-단풍보다 더 좋다니요,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지요.

-묻지마 관광이요, 단 돈 만 원으로 용품을 끈다구요.

-만 원으로?

호기심이 바짝 갔다. 하루 여기서 쉬기로 되어 있으니 가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번쩍 지나갔다. 만원을 주자,

-이것 가지고 저리 가슈. 버스에 타면 되우. 옆을 봐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물으면 안 되우. 묻지 마 관광이니 명심하시우.

하얀 카드를 주면서 말했다. 21번 좌석 번호였다. 버스에 올랐다. 몇 사람이 타고 있었다. 모두가 한쪽에만 앉아 있다. 의아스럽기는 하면서도 호기심이 더해 갔다.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올라와서 자기 번호 좌석을 찾아갔다. 남녀가 한 짝이 되게 배치가 된 것 같았다. 여기 저기 짝이 맞아갔다. 대개 중년이요, 때로는 삼십대 후반도 보였다. 신기한 광경에 어리둥절했다. 자리가 거의 차 갔다. 옆자리에 누가 올라 궁금해졌다. 남들은 다 짝이 맞아 앉아 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아 관심이 갔다. 용품을 끈다고 했으니 기왕이면 창덕궁이라고 애띤 아가씨가 사뿐히 앉어야지 하고 궁금증이 갔다.

-자 두 자리가 남았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굵은 남자의 말에 모두가 죽은 듯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묻지 마 관광이니 서로 아무 말도 물을 수가 없어서 차내는 아무 말 없이 가벼운 리듬이 차내의 공기를 서서히 돌리고 있었다.

-자 다 왔습니다. 이제부터 묻지 마 관광이 시작되겠습니다.

한 여인이 옆에 와서 앉았다. 불석하고 앉는 것이 사십대의 아줌마 같았다.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무엇을 물어볼 수도 없으니 답답하기는 했어도 여인의 따스한 기를 같이 할 수 있으니 싫지는 않았다.

버스는 계곡을 따라 한참 갔다. 단풍으로 어우러지고 물소리가 차내에까지 들려오는데 테이프는 신 나는 뿡작에 가까운 리듬으로 변해 갔다.

-아 저 단풍 봐요. 붉은 속에 노랑, 노랑 속에 푸른색이 뒤엉켜 이젠 사람이 사는 세계가 아니지요.

입 밖에 나왔으나 묻지 마 관광이니 입 하나 뺄 수가 없다. 옆에 여인도 마찬가지로 모양이다. 옆에 앉아 있는 남자가 누군지 얼굴도 못보고 말도 못하고 같이 타고 가자니 답답할 게 뻔하다. 테이프 소리와 계곡의 절경에 아마 여인이 취해 가는지 숨소리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버스가 계곡을 벗어나 산등성을 달려갔다. 이젠 완전히 단풍 속을 달리고 있었다. 길 옆에 어우러진 단풍이 버스를 축복하는 것같이 춤을 추고 있었다. 차내의 사람들은 거의 말이 없었다. 간혹 작게 소근거리는 쌍이 있기는 해도 거의 전부가 묻지 마 관광의 룰을 지키고 있었다.

-자 얼마 안 가서 파라다이스골에 도착합니다. 5시간의 자유시간이오니 그 사이 점심도 하고 또 같이 나누시고 시간에 꼭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않은 분은 도시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모두 얼굴의 화색이 도는 것 같았다. 옆을 보려다가 그만 두었다. 파라다이스골은 식당과 러브모텔 골짜기였다. 이 깊은 산중에 이런 데가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차가 도착하자 그 친구는 또 한마디를 던졌다.

-시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너무 흠어져 늦으면 차는 정시에 떠납니다.

나는 일어설 수가 없었다.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본 여자와 나가기가 쑥스러웠다.

-안 나가십니까. 도시락을 드릴게요.

서너 쌍이 남아 있었다. 나머지는 언제 마음을 통했는지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가고 대담하게 러브 모텔로 직행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묻지 마 관광이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예, 도시락이에요. 정말 드실거예요. 묻지 마 관광의 진객들이네요.

그 친구의 말이 어딘가 꼬여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일어설 수도 없지 않은가.

-참, 세상에. 묻지 마 관광의 룰을 믿는 사람도 다 있네.

그 여인이 발딱 일어나 한 마디 쏘아붙이면서 차 밖으로 나갔다.

나는 어이없이 그 자리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단풍보다 낫다는 건가.